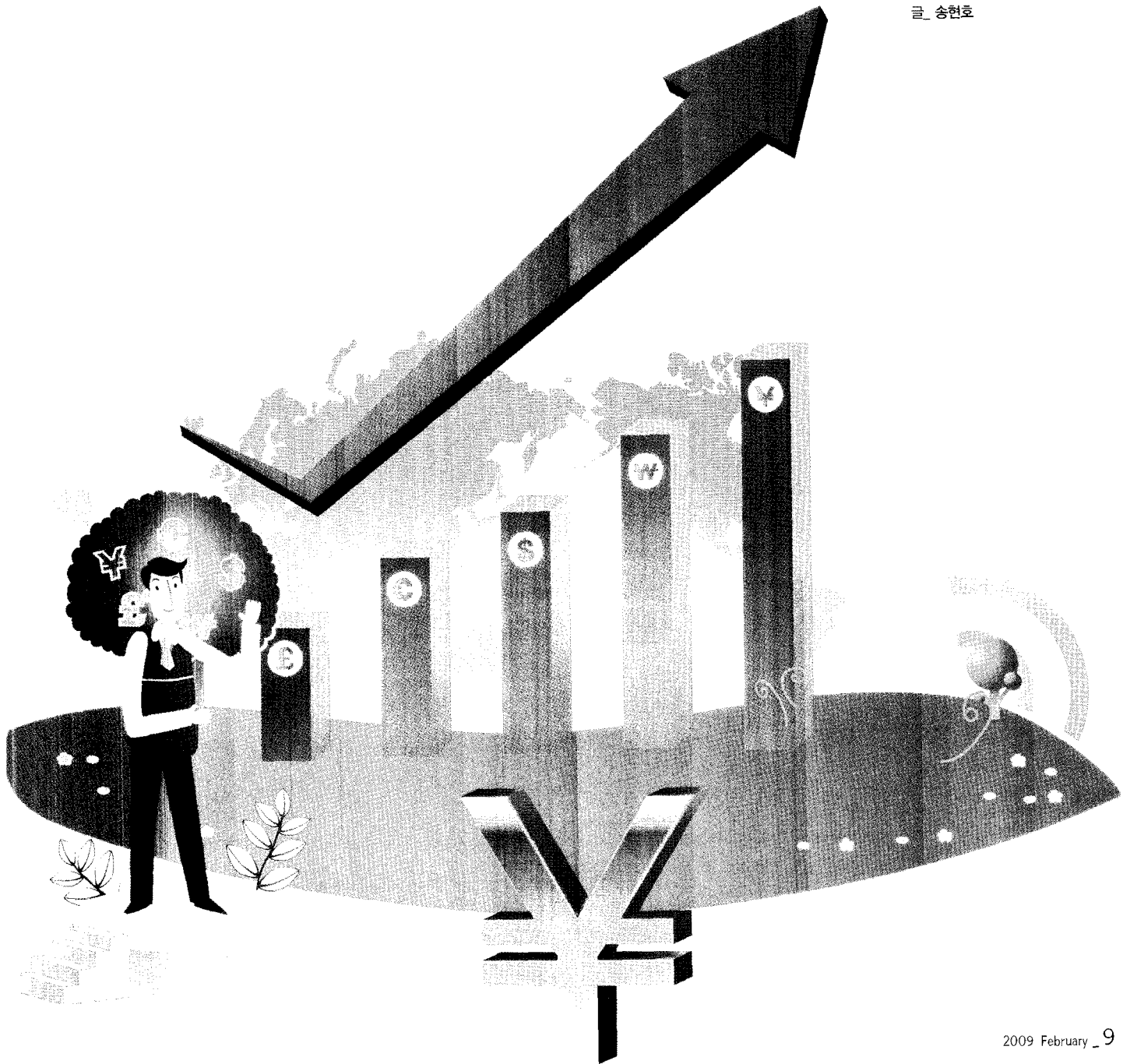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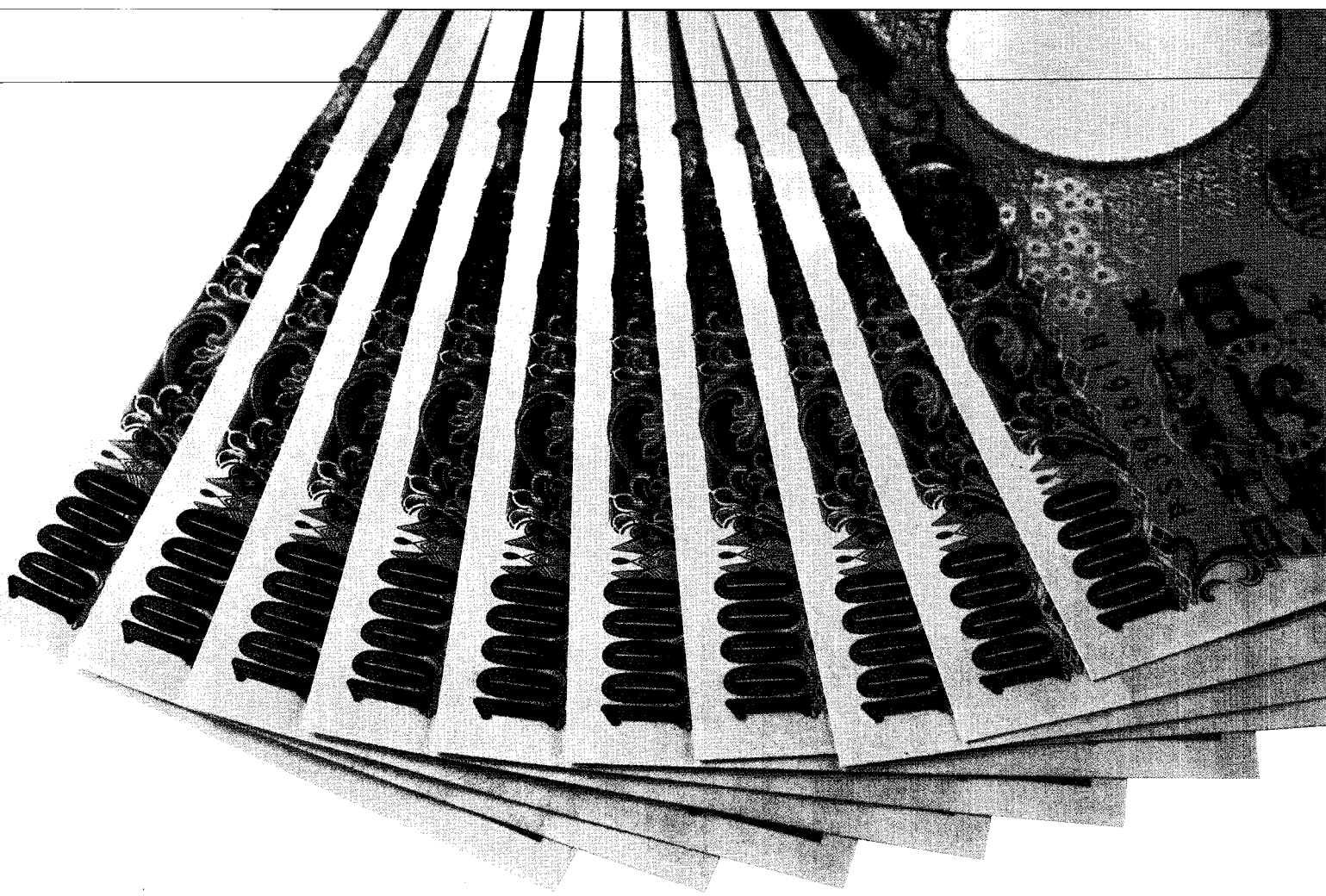
# \_ 지금이 벤처투자 적기

## 벤처캐피탈 투자지감 열리고 엔화도 몰려온다

벤처의 힘은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벤처투자도 마찬가지다. 지속되는 경기하강 국면이 오히려 벤처투자에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 민간 벤처캐피탈 업체들이 투자액을 전년대비 80% 이상 올려 잡고 있다. 더불어 엔고(円高)로 일본 자금도 국내 벤처업계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다니 우리 벤처업계로서는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장밋빛 기대감을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환경, 에너지 분야와 워젯분야 등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글\_ 송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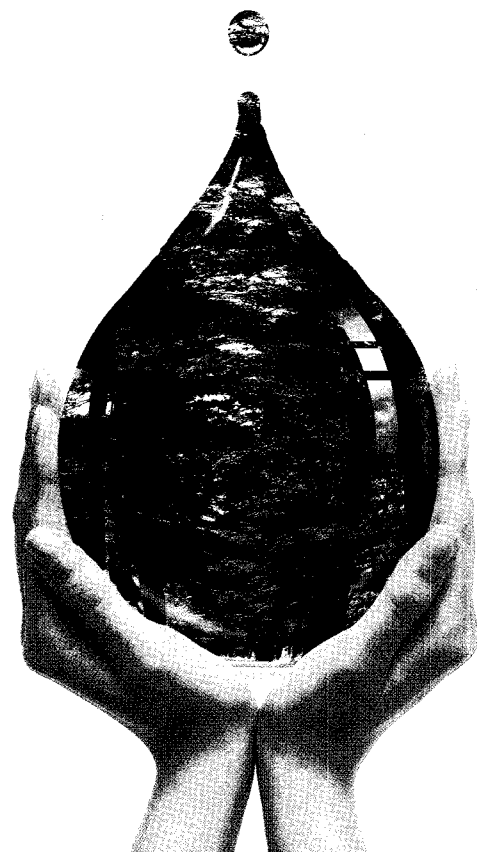
**벤처캐피탈 투자액 전년대비 두 배**

“지금의 경제위기가말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새로운 기회이며 벤처캐피탈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모험자본인 벤처캐피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벤처캐피탈 업계의 원로인 김창달 마이벤처파트너스 회장의 말이다.

그는 모두 다 어렵다는 2009년을 시작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벤처활성화의 최대 기회라고 피력한다. 벤처투자도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경기 하강국면이 바로 투자 시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경기침체로 기업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투자하기 좋은 때라는 것. 때문에 올해 벤처캐피탈 업체들은 투자목표액을 약 7,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가량 늘려 잡는 등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의 경기부양책까지 뒷받침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펀트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스타인베스트먼트는 올해 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수치는 지난해 총 80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LB인베스트먼트도 IT와 환경, 에너지 분야에 425억 원, 기업구조조정 투자 1,000억 원 등 총 1,425억 원을 투자기로 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700억 원을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목표다. 한국기술투자는 에너지 분야에 올해 2,500억 원을 풀어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결성된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올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 200억 원을 디지털콘텐츠와 모바일콘텐츠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KTB캐피탈도 헬스케어, 바이오, 대체에너지 분야에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엔화가 몰려온다**

최근 엔고의 영향으로 일본계 자금이 급속하게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신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대기업인 SBI홀딩스는 지난해 말 현재 1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에도 한국기술투자의 계열사인 KTIC 홀딩스에 250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시장 진출에 앞장선 바 있다.

또 일본 업체들은 엔고에 따른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산 부품구매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우리 부품소재기업들은 엔고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시장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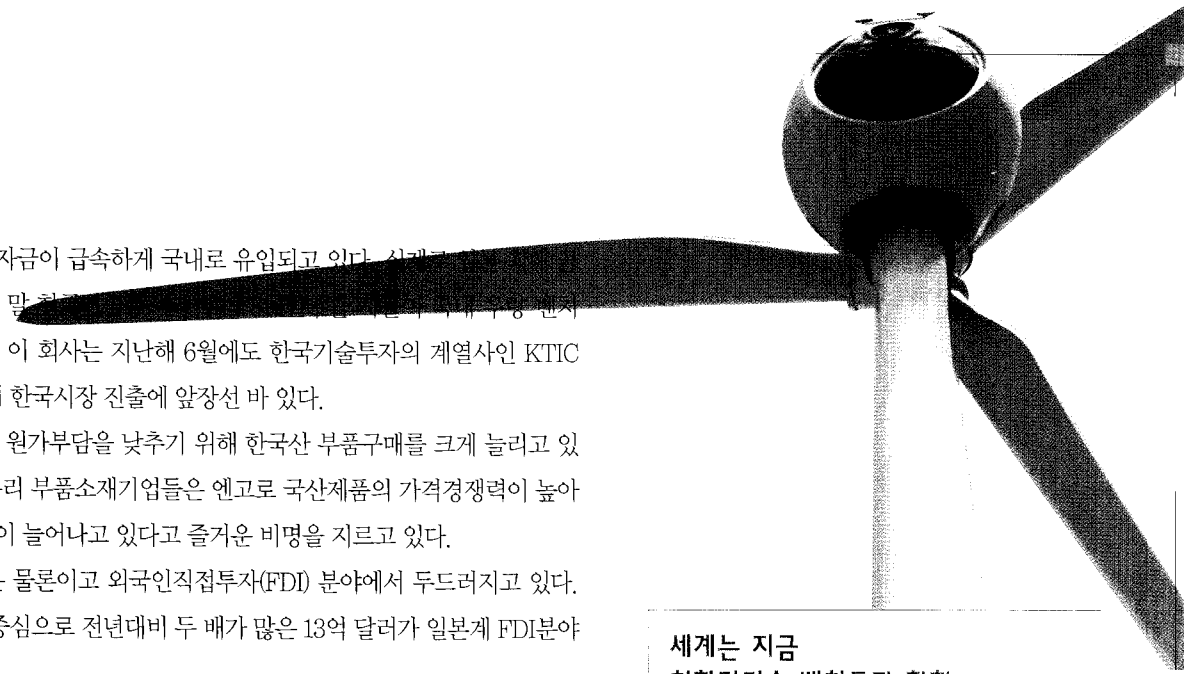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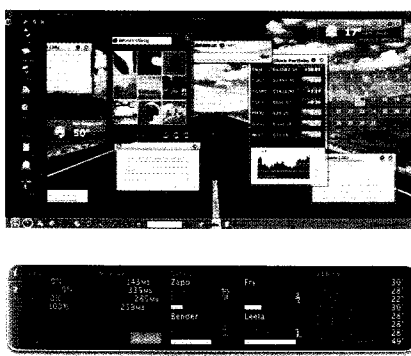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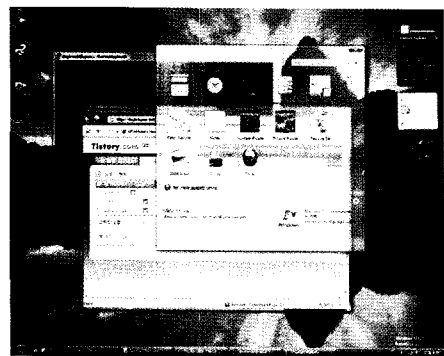
일본계 자금유입은 벤처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두 배가 많은 13억 달러가 일본계 FDI분야에서 발생했다.

이들 일본계 FDI자금은 올해 들어 제조업에서 부품소재, 서비스에서 금융, 물류분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다.

**환경, 에너지, 실버, 위젯으로 돈 몰린다**

이들 벤처캐피탈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미래유망분야로 불리는 환경과 에너지, 실버, 위젯 분야로 압축된다. 실제로 태양에너지 바이오연료, 고효율 LED기술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벤처투자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2008년부터 거세게 일어났다. 2008년 2, 4분기 청정에너지 벤처투자는 전년대비 5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블로그나 웹사이트 등에 다양한 콘텐츠를 별도의 설치 없이 손쉽게 삽입할 수 있는 도구인 위젯(Widget) 관련 벤처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모바일 위젯 벤처업체 가운데 바이콘미디어(대표 이재철, www.mybicom.com)는 올해 440만 달러를 투자받은 실리콘밸리의 플러스모와 견줄만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회사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십까지 갖추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로 주목된다. 웹 위젯분야에서는 인사이트미디어(대표 유정원, www.ensight.co.kr)와 워드웍스(대표 표철민, www.wzdworks.com)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벤처기업들이다. 미래유망분야로 불리는 에너지, 환경, 바이오, IT 분야는 올해 벤처캐피탈 자금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브레이크 없는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는 지금  
친환경기술 벤처투자 활발**

세계는 지금 친환경기술 분야 벤처 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해 친환경기술 분야에 투자된 벤처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의 환경산업 전문 조사업체인 클린테크그룹은 2008년 전 세계 친환경 기술에 대한 벤처 투자금액이 총 84억 달러로, 2007년 61억 달러보다 38% 급증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7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4분기 벤처 투자액은 전분기보다 35% 줄어든 17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벤처 자금 줄이 막힌 상황에서도 지난해 4분기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액은 1년 전보다 4%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태양광 기술에 대한 투자액은 33억 달러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상위 5위 투자처 중 3곳은 박막 태양광 기술 업체로, 나노솔라·솔린드라·솔로파워 등이 포함됐다. 태양에너지에 이어 바이오연료(11%), 전기차와 2차전지를 비롯한 친환경 수송(9.5%)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다.

전년보다 가장 벤처 투자가 급증한 국가는 독일이다. 2008년 한해 독일 내 친환경 투자는 베를린의 '셀퍼셀솔라테크닉'에 대한 1억 3,370만 달러 투자에 힘입어 2007년보다 무려 217% 뚝 3억 8,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친환경 업체들은 전세계 투자액의 68%인 58억 달러를 끌어모으는데 성공했다. 클린테크그룹은 중국이 전세계 투자 총액의 5%를 차지하는데 그쳤지만, 태양광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 관련제조 기반이 유럽·미국에서 중국으로 빠르게 이전할 것으로 예측했다.